

 책머리에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20세기를 마감하는 근자의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세기 전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나라의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는 현실이나, 그를 타개하고자 하는 애국적 동기에서 금 모으기와 같은 '신국채보상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과거사의 암울한 그림자가 오늘을 다시 뒤덮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내외적 상황이 아무리 과거와 유사하더라도, 이미 과거 역사에서 통렬한 교훈을 받은 바 있는 한,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가 한 세기 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역량에 대한 신뢰의 문제일 것이다. 19세기말,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를 합리화하고 추동한 사상은 「사회진화론 *Social Darwinism*」이었다. 그것은 인류역사의 영속적 진보와 발전을 전망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었지만, 그 진보의 동력을 경쟁 — 그것도 동물의 생존경쟁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쟁 — 에 국한시켰다는 점에서는 비인간적이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정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그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지상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공존이나 보존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제국주의 세계대전과 같은 반인간적 참화를 빚어냈고, 인간생존의 기본적 근거가 되는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진화론적 세계관과 그에 입각한 삶의 방식에 대한 회의

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도 했지만, 그 지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것은 19세기말부터였다. 우리 자신이 진화론적 세계관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논리를 철칙처럼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회진화론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을 뒷받침하는 논리였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동양적인 것, 또는 비서구적인 것은 야만과 미개로, 서구적인 모든 것은 문명과 진보의 상징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우리의 모든 전통적인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구 제국과 일본의 침략 앞에서 우리는 우리 것을 지켜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것을 스스로 버리고, 그들의 것만을 금과옥조로 삼고자 하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사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나아갔고, 우리 문화에 대한 총체적 비하로 귀결되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발전역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반세기 가까운 기간동안 식민통치를 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현실을 긍정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부정하게 된 것이 더 큰 피해일는지도 모르겠다.

마치 한 세기 전의 일이 반복되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을 감싸고 있는 지금, 상황은 비슷할지언정 대처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과 허무적 역사인식을 극복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19세기말, 외세의 침투 앞에서 사상적, 문화적으로조차 무력화되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물론 한세기에 걸친 무력감은 지난 수십년동안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상당히 청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신감조차 사실은 경쟁 지상주의적 세계관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음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강해졌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자신감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깨달음과 함께 다시 허물어질 것

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은 우리의 역사 자체에 대한 뿌리깊은 신뢰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서울학연구소가 설립 이래 서울 뿌리찾기에 역점을 두었던 것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또 해방 이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 오면서, 황폐화되고 잊혀졌던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 삶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우리 자신의 발전역량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고, 그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을 세울 때에만 튼튼한 발전의 토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작업은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적실한 것이었다고도 생각된다. 지난 5년여의 세월 동안, 서울학연구소에서 지원하고 수행한 연구는 우리의 희망을 상당 정도 충족시켜 주었다. 여러 연구자들의 정력적인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서울의 변화상을 역동적으로 복원해냄으로써,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새로운 서울상을 모색할 수 있었다. 역사를 긍정함으로써 형성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은, 어떠한 충격이 닥쳐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서울학연구소는 이제 그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20세기 서울의 변천사를 냉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20세기가 서울에, 서울 시민의 삶에 던져준 것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떠한 21세기를 전망해야 하는가를 고구(考究)하는 것이 서울학연구소의 당면 과제이다.

이 책은 『서울학연구』에 수록되었던 글 중 일부와 1997년 『조선 후기 서울의 생활문화』라는 주제하에 진행된 심포지움의 발표문을 모은 것으로 그동안 서울학연구소에서 진행해 온 서울 뿌리찾기의 성과를 일단 정리한 것이다. 각각 다른 문제의식하에 진행된 연구성과를 묶은 것이기는 하지만, 20세기 서울 성장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그 전단계의 발전사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별도로 한 권의 책으로 묶기로 하였다. 이 글들을 통해 조선 후기 서울의 변화상을 발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의 발표 연도와 원 게재지명(『조선후기 서울의 생활문화』는 1997년도 서울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초록집임)은 다음과 같다.

韓相權, 1993 「서울 시민의 삶과 사회문제」 『서울학연구』 창간호  
金鍾洙, 1994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 2

李智媛, 1994 「17~18世紀 서울의 坊役制 運營」 『서울학연구』 3

李文奎, 1995 「朝鮮 後期 서울 市井人의 生活相과 새로운 志向意識」 『서울학연구』 5

조성윤, 1997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 및 직업구성」 『조선후기 서울의 생활문화』

高東煥, 1997 「조선후기 서울의 생업과 경제활동」 『조선후기 서울의 생활문화』

정연식, 1997 「조선후기 탈것에 대한 규제의 변화」 『조선후기 서울의 생활문화』

끝으로 이 책에 옥고(玉稿)를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서울 성장사를 발전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998. 2. 서울학연구소 편집실